

“따뜻한 위로·온정 전달...오히려 행복한 시간”

스님·동구청, 독거노인·결식우려 어르신들 ‘한끼나눔’

한명한명 손 잡아주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 웃음꽃 ‘활짝’

“명절에도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전하는 기회가 만들어져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두번째 추석이다가왔다.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응기종기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간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민족 대명절 ‘추석’도 옛말이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권고한 만큼 명절 음식도 택배와 배달 등으로

전달하는 비대면 추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 추석마저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다. 바로 코로나19로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홀로 명절을 보내야만 하는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이 어느 때보다 외로운 명절을 보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스님과 동구청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추석 연휴 끼니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광주 동구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16일 광주 동구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자비신행회를 비롯해 소원정사 도계스님 등 열네분의 큰 스님들이 함께 봉사해 나갔다.

앞에서는 추석 특별식으로 채운 ‘명절 꾸러미 전달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자비신행회를 비롯해 소원정사 도계스님 등 열 네분의 큰 스님들이 함께 봉사자로 나서 결식 우려 대상자 120명에게 오리막·송편·과일바구니·간식·마스크 등 한가위 꾸러미를

전달했다.

꾸러미를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로 요즘 마음이 적적했는데 특별한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다. 덕분에 추석을 잘 보낼 것 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

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올해 6월부터 매주 목요일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어르신들에게 밥·국·간단한 반찬 등이 담긴 도시락 하나만을 전해줘야 했던 상황은 봉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응어리를 한꺼번에 풀어내길라도 하듯이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어르신 한명한명 손을 잡아주는 등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소원정사 도계스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매주 목요일 한끼 나눔 봉사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큰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명절이면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돌봄 이웃들이 이웃이 전하는 따뜻한 정성으로 즐

겁고 건강하게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되고 있는 한끼 나눔이 돌봄이웃들의 높은 호응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후원 기관들과 연계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갈것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6월부터 실시한 ‘든든한 한끼 나눔’ 사업은 매주 목요일 소원정사 도계스님과 (사)자비신행회에서 결식우려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배부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무료급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내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조태훈 기자

새 전남대병원 건립 ‘반대’...“용봉캠퍼스로 이전해야”

전남대 간호대학 “학동 부지 신·증축 설문조사 불합리”

전남대병원이 광주 동구 학동캠퍼스에 새 병원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대 간호학과 측이 구성원 등의 없는 병원 확충에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대 간호대학 교수 일당은 16일 “학동캠퍼스는 교육·체육시설 등 열악한 인프라 문제로, 2016년부터 수차례 용봉캠퍼스로 이전 요구를 했음에도 외면 당해왔다”며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간호 교육기관인 전남대 간호학과와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용봉캠퍼스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대학 이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새 병원 건립 계획이 당사자인

간호대학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동 부지 신·증축 계획과 관련 전남대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불합리하다”며 “간호대 구성원을 제외하고 나면, 대다수 학생들은 학동캠퍼스에 위치한 단과대학이 처한 문제나 상황을 모르고 있어 새 병원 건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대학 이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병원 건립을 위한 간호대학 부지사용 검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옆 전남대 학동캠

퍼스 의과대학 부지와 건물, 간호대학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현재 1천병상 규모를 1천500병상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과대학(본과 1~4학년) 학생들은 현재 화순전남대병원(화순캠퍼스)에서 수업하고 있어 의과대학 부지와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호대학의 경우 이전 문제 등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 채덕희 간호대학 부학장은 “간호대학 학생과 교수들만 외면섬처럼 학동 캠퍼스에 남아 용봉캠퍼스의 첨단 교육·문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간호대학의 용봉캠퍼스 이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광주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공자탄생과 유교 선현을 기리는 추기 석전대제(釋奠大祭)가 16일 오전 남구 구동 광주향교에서 지역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고 있다. 석전대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는 문화유산으로,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춘기와 추기 2회 봉행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현직 농협 조합장 업무상 배임 의혹

경찰, 고소장 접수...사실여부 확인 수사 착수

광주지역 현직 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A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N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A 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과 N농협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인 임금인상, 직원채용, 명예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 이를 생각하고 임의로 집행해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먼저 불법 임금 인상의 경우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집행해 2년 동안 10억9천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원 조정을 하고, 조정된 정원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 조합장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직원 10

명을 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불법 명예퇴직금 지급의 경우도 이사회의 의결로 직원 명예퇴직 규정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가 명예퇴직 규정의 건을 상정해 부결함에 따라 지급이 불가함에도 직원 4명에 대한 명예퇴직금 7억원 가량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앞서 N농협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농협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태훈 기자

“5·18 투입 군인, 계엄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전투한 회고록 속 ‘군인 장갑차 사망’에 대해 “시민군이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1980년 5월21일 계엄군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 배치됐던 이경남 목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목사는 당시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으로, 1993년 ‘당대비평’ 기사를 통해 권운은 일병이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1995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시민들의 버스, 트럭 등이 저지선을 넘어 돌진하니까 군부대 장갑차가 급히 퇴각하면서 넘어진 군인을 덮쳤다”며 “광주YMCA 앞 인도로 피하고 나서 돌아보니 병사 한 명이 후진하던 무한궤도형 장갑차에 치여 죽사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광주 금남로에서 대

치 중이던 시민 시위대와 11공수여단 계엄군 사이에 광주 기갑학교로부터 지원받은 무한궤도형 장갑차 두 대가 배치돼 있었다.

이 중 광주YMCA 쪽 차로에 있던 장갑차 한 대가 후퇴하면서 도청 쪽으로 뛰어나오다가 넘어진 권 일병을 덮쳤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저는 사고 목격 후 병사들이 모여 있는 옛 전남도청 방향으로 이동했다”며 “저의 추정으로는 그때 1차 가해 후 도시형 장갑차나 시민군 차량에 의해 2차·3차 가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시민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했다는 진술도 나왔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상가 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당진신축 (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5천(용2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배,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사비없음) 010-6670-9800	투자확신/강력추천!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천만 ◆ 매매13억(용6억5천)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신상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010-6670-9800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컴퓨터제공,매주1회 물건스터디 <table><tr><td>광주</td><td>서구 치평동(아파트) ▶감정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감정가 13억4천 →최저가 5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감정가 18억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감정가 8억3천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6천 (9/28)</td></tr><tr><td>전남</td><td>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9천 (9/16) 화순군 백야면(근린시설) ▶감정가 13억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감정가 68억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감정가2억7천 →최저가7천 (10/12)</td></tr><tr><td>시외</td><td>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번산면(숙박시설) ▶감정가 4억 5천 →최저가 2억 2천 (9/27)</td></tr></table> 062-382-5500	광주	서구 치평동(아파트) ▶감정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감정가 13억4천 →최저가 5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감정가 18억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감정가 8억3천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6천 (9/28)	전남	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9천 (9/16) 화순군 백야면(근린시설) ▶감정가 13억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감정가 68억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감정가2억7천 →최저가7천 (10/12)	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번산면(숙박시설) ▶감정가 4억 5천 →최저가 2억 2천 (9/27)
광주	서구 치평동(아파트) ▶감정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감정가 13억4천 →최저가 5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감정가 18억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감정가 8억3천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6천 (9/28)								
전남	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9천 (9/16) 화순군 백야면(근린시설) ▶감정가 13억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감정가 68억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감정가2억7천 →최저가7천 (10/12)								
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번산면(숙박시설) ▶감정가 4억 5천 →최저가 2억 2천 (9/27)								